

與 ‘주식 논란 이미션’을 어이할꼬

한국당 ‘헌법재판관 부적격’ 자진사퇴 압박·인사수석 책임론 평화·정의당도 가세... 민주, 내부 이견·4당 압박에 사면초가

과다 주식 보유 및 매매 논란에 휘말린 이미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의 거취가 정국의 흐름을 좌우할 변수이자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여권이 ‘이 후보자의 임명 강행’으로 가닥을 잡을 경우 갈등 정국은 한층 달아오르며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위해 소집된 4월 임시국회가 울스톱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여권은 전날 인사청문회를 끝낸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강조하며 일제히 사퇴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한 적격·부적격 의견이 혼재돼 나오면서 어수선한 모습이다.

여권은 부부합산 35억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한 이 후보자의 부적격성을 부각하며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동시에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조현욱 인사수석 경질’ 공세를 한층 강화했다. 최근 장관 후보자 2명의 낙마 사태에 이은 이 후보자의 문제는 청와대의 ‘인사 실패’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의회에서 “주식으로 재산을 35억원이나 만들고도 그것을 남편이 다했다고 주장하는 헌법재판관 후보는 정말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것 아닌가”라며 “즉각 사퇴하거나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와대의 소위 ‘조조 라인’(조국·조현욱 수석)은 이제 정말 퇴출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한국당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자격이 없다고 판단

하며,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며 “계속된 인사 실패에 문재인 대통령은 사과와 인사라인 경질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의 ‘우군’으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과 정의당마저 ‘이미션 사퇴 압박’에 가세했다. 평화당은 이 후보자를 투자의 귀재 짐 로저스에 빚대 ‘미션 로저스’라고 명명하며 사퇴를 요구했고, 정의당은 “문제가 심각하다”며 이 후보자를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에 올렸다.

민주당 고립무원 처지에 놓인 가운데 내부적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일단 ‘위법이 없으며 야당의 정치 공세’라는 입장이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등 곤혹스러운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진사퇴로 정리해서 빨리 매듭을 짓는 게 낫다”고 했고, 한 최고위원은 “전체 재산에서 주식이 차지하는 비중이 너무 높고, 주식 투

자를 많이 했다는 것도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관 후보자 2명에 이어 이 후보자마저 낙마하면 정국 주도권 경쟁에서 야권에 밀릴 수 있다는 점이 민주당이 고민하는 대목이다.

야 4당의 공세에 포위된 민주당이 사태의 파장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졌을 때처럼 청와대에 신속하게 지도부 차원의 의견을 제시할지도 주목된다. 여론이 더욱 낮춰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지명 철회를 청와대에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미국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이 12일 늦게 귀국할 예정이어서 이 후보자에 대한 여론 전체의 판단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높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자 스스로 사퇴를 결심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손학규 “바른미래 해체? 어림없는 소리”

“중도 기치 수권정당 지향”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11일 “양대 세력 간의 원심력이 이미 작용하고 있다. 우리 당을 해체하는 건 어림 없는 소리”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열린 당 사무처 월례회에서 “왜 새누리당에서 나왔고, 민주당에서 나와서 바른미래당을 만들고 국민의당을 만들어 바른미래당으로 통합했다. 양극단 정치, 좌우 이념대결에서 벗어나 민생 경제를 돌보는 정치를 하자는 것 아니었나”라며 “분파 작용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분파 작용을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또 “1당, 2당 선거에만 익숙한 사람들은 1당, 2당에 끼어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 조바심이 있는데 우리 정치는 그렇지 않고 3당, 4당의 역학이 있다”며 “물론 우리가 3당으로 남겠다는 것은 아니고, 정치 구조를 바꿔서 극좌·

극우를 표방하는 사람들은 그러로 가라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그 중원을 차지하는 새 정치 세력이 대한민국 정치의 새 주축이 될 거고, 우리는 그 주축을 만들어 수권 정당으로 집권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며 바른미래당이 중도 기치를 표방하는 정당으로서 정계개편을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한편, 손 대표는 당초 김관영 원내대표 등의 해외 출장, 바른미래당계 최고위원들의 당무 보이콧이 겹치면서 이날부터 이틀간 내기로 했던 휴가를 취소했다. 손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를 다시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취임 후 휴가는 한번도 안 썼고 최고위도 파행이라 하루 쉬려고 했는데 한미정상회담이 열려서 최고위를 열기로 했다”며 보이콧을 선언한 최고위원들에게 최고 위 참석을 거듭 요청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정동영 “3지대론, 당대 당 통합가능”

평화당, 정계개편 공론화... 박지원 “손학규 결단 내려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는 11일 바른미래당 내 국민의당 출신 호남 의원들과 평화당의 ‘제3지대’ 구성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대표는 이날 BBS 라디오 ‘이상위의 아침저녁’에 출연해 “바른미래당이 내부 정리가 된다면 국민의당 시절 한술밥을 같이 먹던 분들과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당 대 당 통합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지난 4·3 보궐선거 이후 옛 국민의당 출신들의 ‘제3지대론’이 수면 위로 부상한 가운데 정의당과의 공동교섭단체 구성에 적극적이었던 정 대표가 방향을 선회, 당 대 당 통합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야권발 정계개편이 본격적인 공론의 장에 오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tbs 라디오 ‘김여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보수와 진보가 어떻게 한 지붕(바른미래당)에 사느냐. 총선은 가까워지기 때문에 차라리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결단을 내려 만약 유승민 의원 등이 저쪽(자유한국당)으로 안 넘어간다고 하면 (바른미래당을) 나올 수 있지 않나”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안철수 전 대표가 급내 내로 (정치권에) 올 것”이라며 “만약 그분이 귀국해 정치로 돌아온다면 유승민 의원과 함께 보수의 기치를 들고 호시탐탐 한국당 의원과 통합의 기회를 모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가능성에 대해 박 의원은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靑, 산불 당일 대통령 가짜뉴스 고발

허위조작정보 대응팀 가동... 사실 왜곡 원천 차단

청와대는 강원 산불 당일 문재인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가짜뉴스에 대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 명의로 고발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공지 메시지를 보내 “노영민 비서실장 명의로 본 사안에 대해 고발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노 실장은 청와대 내에 허위조작정보 대응팀을 구성해 가동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오전 참모진과의 회의 자리에서 “강원 산불화재 당일 대통령 행적에 대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해서 신속

하고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부대변인이 전했다.

청와대가 지목한 가짜뉴스는 문 대통령이 산불이 발생한 지난 4일 저녁 ‘신문의 날’ 행사를 마치고 언론사 사장들과 술을 마셨다는 등의 내용이다.

청와대가 고발 진행에 더해 대응팀까지 구성하며 가짜뉴스에 강력 대응하는 것은 왜곡된 주장이 증폭돼 자칫 국민에게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5당 원내대표단, 1921년 임정 요인들이 섰던 그자리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인 11일 환한수 3·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사업추진위원장을 비롯한 정부 대표단과 5당 원내대표 등 국회 원내대표단이 중국 상하이의 용인백화점 옥상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1921년 1월 1일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호텔인 대동여사(大同旅舍)에 모여 신년 축하식을 열고 역사적인 기념사진을 남겼다.

/연합뉴스

전남도-민주당 나주서 예산정책협의회

한전공대 설립·지역현안 국비확보 현황 등 논의

전남도가 12일 광주·전남혁신도시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연다. 이날 협의회는 혁신도시 한전본사 회의실에서 열리며 한전공대 설립을 비롯한 지역현안 및 내년 국비확보 현황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협의회에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최고위원을 비롯한 지도부 등이 참석하고 전남에서는 김영록 지사와 허석 순천시장과 강인규 나주시장 등 소속 지방자치

단체장이 참여한다.

전남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목포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진입도로 개설 등 각 시·군별로 40여 건의 현안사업 국비 반영을 건의할 계획이다.

한편, 민주당 전남도당은 협의회를 마치고 순천으로 이동, 순천만국제습지에서에서 전남 새100년위원회 출범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의당, 집단 지도체제 전환 검토

정의당은 현재의 단일성 지도체제를 집단 지도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골자로 하는 새 당헌·당규를 내부 검토하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전국위원회 산하 당헌·당규 개정 태스크포스(TF)를 이끄는 강은미 부대표는 “현재 당헌·당규 개정안 초안이 나온 상태로, 시도당 위원장 간담회 등을 거쳐 오는 19일에서 더 정돈된 안이 나올 것 같다”고 소개했다. 강 부대표는 이어 “당규는 전국위에서 개정할 수 있지만, 당

헌을 개정하려면 당 대회를 열어야 한다”며 “정기 당 대회가 오는 10월이어서 이를 앞당겨야 할지 등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당헌 개정 논의의 핵심은 지도체제의 전환이다. 대표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상무위원회를 대표와 다수의 부대표 내지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회의체로 바꿔 최고위원을 중심으로 한 권한을 분산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1566-9988

8 5 1
116 40 point

1 6 5 2 4
110 20 point

6 8 2 4 7 5 8 1
108 14 point

2 5 1 6 4 9 7 8 3
102 12 point

1 3 0 7 5 8 4 9 2
100 10 point

2 4 6 3 7 1 2 8 0
100 8 point

4 6 2 8 1 0 9 7 3
100 6 point

J2 5 point 0762143002

J1 4 point 001799002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J1+ 3 point 000000000

◆ 돌보기보다 노안수술이 효자

* 노안수술 시 돌보기 없이 J1, J2 를 읽을 수 있습니다.

광주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눈모양빌딩

신세계안과 옛.밝은광주안과

슬라브 옥상스틸 방수 및 지붕공사

단열재가 부착된 스틸(강판) 패널

옥상 스틸방수

아파트, 주택, 원룸, 학교, 상가건물
공공건물, 대형빌딩 등 (슬라브, 옥상)시공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지붕공사

슬라브 옥상, 주택, 상가
원룸, 데스리, 한옥 등 시공

옥탑이 없는 평 슬라브
주택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 ▶ 방수와 단열 이중효과!
- ▶ 옥상 사용 및 태양광 설치 전과 후 시공 가능!
- ▶ 시공후 관리 보수 용이!
- ▶ 옥상 한번 시공으로 고민 끝!
- ▶ 최신공법의 특수 방수!
- ▶ 냉난방비 절감 효과!

디자인 등록 제 30-0934833호, 제 30-0949873호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문의 **062)531-3530 H.010-9229-3530**